

조선시대 무기 연구에 기틀 마련

호남문화재연구원-국립진주박물관, 비격진천뢰 보존·전시 업무협약 체결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에서 출토된 조선시대 최초 시합폭탄인 '비격진천뢰'가 임진왜란 특성과 박물관인 경남 국립진주박물관에서 보존처리와 연구를 진행한다.

지난 4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무장현 관아 발굴을 전담하고 있는 호남문화재연구원과 진주국립박물관이 '비격진천뢰'의 연구와 보존·전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 2005년부터 고창 무장현 관아 발굴 관련 연차확충조사를 실시하고, 유적의 복원정비 사업을 진행해 왔다. 발굴을 담당할 호남문화재연구원은 이번 조사에서 군사시설 터를 확인했고, 지난해 말 희귀유물인 11점의 비격진천뢰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문화재청과 고창군·호남문화재연구원은 지도위원회와 현장 협의를 거쳐 임진왜란 문화재 연구에 특화된 국립진주박물관과 비격진천뢰의 보존처리·연구를 공동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국립진주박물관은 비격진천뢰의 과학적 조사, 보존처리와 공동 전시를 진행한다. 또 조사 성과를 토대로 고창군과 호남문화재연구원은 학술세미나를 주관할 계획이다. 협약기간은 총 2년으로 조선시대 최첨단 무기였



비격진천뢰의 출토 모습.

던 비격진천뢰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최영창 국립진주박물관장은 "좀 더 정밀하고 과학적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밝혀내지 못했던 조선시대 무기 연구에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전문기관을 통한 비격진천뢰의 체계적 연구를 통해 임진왜란 당시 고창의 지리적 중요성 등이 입증될 것으로 본다"며 "한반도 첫 수도, 품격 있는 역사문화관광 도시로의 위상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청자박물관, 2년 연속 이용객 10만명 돌파... 청자빛기 체험 인기만점

2011년 4월 개관한 부안청자박물관이 2년 연속 이용객 1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부안청자박물관을 찾은 이용객은 10만 5289명으로 지난 2017년 10만 942명에 비해 5000여명이 늘어나 2년 연속 이용객 1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이로 인한 입장료 등의 수입도 지난 2017년 1억 8500만원에서 2018년 2억 300만원으로 전년보다 1800만원이 늘었다.

특히 부안청자박물관의 자랑인 청자빛기 체험은 6000여명이 다녀가 해를 거듭할수록 그 인기가 높아가고 있다.

매년 전국의 수학여행 및 진로체험 초·중·고 학교에서 방문 후 다시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도 기대가 크다.

부안청자박물관은 2년 연속 이용객 10만 돌파 이유로 부안청자박물관이 '청자'라는 옛것에 박물관이라는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해 청자만들기체험, 4D영상체험, 청자퍼즐맞추기, 브레인서바이벌, 포토홀리존 등 재미있고 신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을 꼽았다.

또 도예가들이 직접 제작한 생활자기 등을 판매하는 뮤지엄샵, 청자문양을 배경으로 한 멋진 카페테리아 운영 등 여유와 힘이 있는 박물관 운영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안청자박물관 관계자는 "해를 거듭하면서 부안청자박물관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고 도



부안청자박물관 전경.

자예술이 최고로 발달한 전성기에 제작된 부안삼감청자의 우수성이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며 "천년전통 도자다기 복원사업과 도자상 품개발,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국제 학술대회, 한여름 작은음악회 등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통해 부안청자박물관의 위상을

제고하고 관람객과 하나되기 위한 지속적인 도전과 노력의 결과"고 말했다.

한편 부안청자박물관에서는 현재 '천 년 부안 고려청자, 차(茶)·향(香)을 품다'라는 주제로 기획특별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헤민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베스트셀러 차트 요지부동 1위

헤민 스님의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이 3주 연속 예스24 베스트셀러 차트 1위를 달렸다. 지난달 27일~1월2일 차트에서 그룹 '워너원'의 두 번째 포토 에세이집 '고마워, 우리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은 지난 주보다 12계단 올라 2위에 랭크됐다.

조던 B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은 전주보다 한 계단 올라 3위에 꽃혔다.

나태주의 '꽃을 보듯 너를 본다', 기욤 뽀리의 '아가씨와 밤', 조운제 '다산의 마지막 공부' 등 최상위권 인기 도서 순위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뉴시스



순창군 옥천골미술관 전경.

섬진강의 다양한 모습에 색다른 재미 선사

옥천골미술관, 섬진강 사생 공모전 당선작 전시

순창군 옥천골미술관이 섬진강 사생공모전 당선작 전시로 올해 첫 포문을 열었다.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제4회 순창군 섬진강 자연생태 관광지 전국사생공모전'(이하 섬진강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우철씨(익산)의 '강천산 병풍 폭포의 가을정취'를 비롯해 총 32점이 오는 31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섬진강 공모전은 지난해로 4회째를 맞이한 전국 단위 공모전으로 일반부 와 학생부 등 참가작품수가 200여점에 이르는 등 그 열기가 높다.

참가자들의 다양한 시각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섬진강과 순창군의 모습들이 군민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으

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순창군과 섬진강을 배경으로 하였지만 작가들의 시선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한 그림들이 많다"면서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관람료는 무료다. 자세한 사항은 옥천골미술관(☎063-650-1638)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 첫 전시회를 연 옥천골미술관은 지난해 조현동 展, 들꽃자수 展 등 총 8회 전시회를 여는 등 지역사회의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